

프란치스칸 희년

젠 파커, 국가 회장의 메시지 - OFS-USA



내 50 번째 생일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 50 주년의 의미를 알고 있는 내 딸은 내 우체통에 걸을 풋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젠의 희년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내가 구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으로 기쁨과 평화를 맞볼수 있는 하나님께로 항상 향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모로 차고 벽에 걸려 있습니다. 2022 년 5 년 차 대회(Q)의 주제가 "희년"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밥 브래디 수사 OFM 이 제안했고, 나는 감격했습니다. 나는 50 세가 되었을 때 개인 희년을 경축했고,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힘을 다시 발견하는 일 년 동안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희망이자 우리 전체 Q 위원회의 희망은 이 희년 대회가 우리

국가 형제회의 모든 사람과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회심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의 역사는 레위기 25 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는 이 50 주년을 성스러운 해로 선언할 것이다... 너는 이것을 희년으로 지킬 것이다..." 하느님은 그의 백성에게 경제, 문화, 환경 및 공동체의 재설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땅과 사람들이 쉬고 노예 상태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희년 법은 공동체의 안녕을 다루고,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과 서로, 그리고 피조물과 좋은 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요구합니다. ¹ 희년 법은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의도를 알려줍니다.

누가의 복음으로 빨리 이동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희년* - "주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잠깐만, 여기에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감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50 년, 매 7 년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매일! 하느님의 나라는 지금입니다. *희년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에서 우리는 희년의 목적을 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하나님과의 화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재설정.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내면화하셨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서 5 장에서 완전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과 새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개조되어야 하는 부르심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보고 이 *회심으로의 부르심*을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백성 즉 교회는 하느님이 모든 피조물을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미리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한 희년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년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만. 뒤로 물러나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희년의 순간은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고 사회의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것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여하리니 율법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² 희년은 더 이상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셨고 우리 *마음에* 이 율법을 심기 위해 그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약으로 더욱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 관대함과 희생을 모두 수반하는 살아 있는 제자훈련에 헌신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재설정*하고 *해방과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하느님 사명의 일부 즉 희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 지속해서 요청합니다.

¹ tearfund.org.au/stories/jubilee-in-the-bible 을 보라. *Teafund* 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위해 일하는 기독교 기관입니다.

² 예레미야 31:31

평화의 전달자이자 기쁨과 희망의 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를 기억하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Q 사명 선언문은 우리에게 **“회심의 정신으로 우리의 프란치스칸 소명을 기념하고 새롭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Q 순간과 앞으로 매일 우리는 매일의 회심과 사회의 회심에 힘쓰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희년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회복이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매우 중요하다)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일부이자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 CB 사무엘

우리 자신과 세상 모두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 예언적 창의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력에 맞춰 과감히 창조합니다. 이 새 창조의 확실한 소망을 성육신하여 행하고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되십시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를 위한 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자매와 형제로 사랑합니다. 내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 이 희년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우리가 가고 있는 경로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코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만 바라보지 맙시다. 오늘을 바라봅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받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희년을 경험하기 위하여 Q 축제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Q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년의 기쁨은 우리가 잠시 쉬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것입니다. 희년의 기쁨은 모든 프란치스칸의 마음에 있으며 형제회에서의 모든 경험, 즉 형제적 친교의 모든 순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희년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며, 겸손하고, 평화롭고,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바람직한 이런 형제와 이런 아드님을 모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것처럼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배우자이신 성령을 모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³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희년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회복의 희년 노래

시편 126 편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돌리실 제 우리는 마치 꿈꾸는 이들 같았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우리 혀는 환성으로 가득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운명을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이 곡식 단 들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³ 재속회 회칙을 볼것: 회개하는 형제자매에게 보내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초기의 권유